

건국대학교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 소식지

신입생 소개



건국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학교가 크고 예쁩니다. 개강을 해서 강의가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지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르쉬파에바 디아나

서울에서 유명한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어 정말 행복합니다. 저는 신입생으로서 많은 혼란과 질문이 있었지만, 국제처 외국인학생센터의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건국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어 부딪힘을 느꼈고, 동시에 더 나은 직업을 위해 저의 기술과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얻기를 바라며 열심히 학교생활을 할 예정입니다.



린타 이쉬랏 자한

신입생 여러분 입학 축하합니다. 이런 위대한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영광입니다. 우리는 이제 전문적인 교육을 시작했고 앞으로 좋은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동시에 힘든 순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의 열정으로 더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도록 해요! 앞으로 더 좋은 인생의 길을 찾아가면서 성공적이고 위대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화이팅 합시다^^



누리예바 하피자

GKS 학생으로 건국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개강을 하고 나니 지금은 어려운 전공 공부를 해야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조금씩 생기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적응이 되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사호 슈피비

인도네시아에서 온 아우피아스 앙그라이니 라고합니다. 미술택처를 공부하기 위해서 건국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새로운 나라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Michelle

I am Cristina Bruma from the Republic of Moldova, on the border with Ukraine, where there is still war...I came to Korea, namely Konkuk University, to realize my dream of writing books and helping many people. Here I found a unique specialty that is not found anywhere in Europe. Literature Therapy. I am so grateful to GKS and Konkuk for this opportunity. I will thank you through my work and results.

Cristina Bruma



미토 누신 무스타파

우선 친절한 교수님 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교 주변은 정말 아름답지만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투명한 경계 있는 것이 때론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신입생이니까 그러한 불편함이 조금 있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한국 생활에 더욱 적응하면 제가 더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쿠르바노바 아나혼

I am Hafiza from Uzbekistan. I have recently started to my master degree at the Konkuk University and I am really pleased with the environment here. Teachers and the staffs are really patient and polite with new student. And we have really good environment to study and also enjoy the readyly big campus as well.



Tin Myat Noe Wai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에서 온 사호 슈리비라고 합니다. 저의 꿈이었기 때문에 이 대학에 입학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대학의 환경이 너무 좋아서 공부에 집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국대학에 입학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Anggraini Ayutias

I am Michelle and I am from Indonesia. I just arrived in South Korea around 1 month ago and life here has been very interesting. The language class is also very interesting. I also enjoyed going around Seoul to visit pop up store and eating good food.



Cristina Bruma

건국대학교는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대학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학생센터에서는 제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항상 최신 정보를 많이 안내해 주시고 제 질문에도 빠르게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도움을 받아 대학원 입학도 손조롭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건국대학교는 제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고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어떤 일들이 생길지 기대가 됩니다.



페레라스 마리 스텔라

제 전문 분야를 다른 나라에서 공부하게 되어 설립니다. 외국인학생센터의 선생님들과 담당 선생님들께서 저의를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건국대학교에서 대학원생이 되어 영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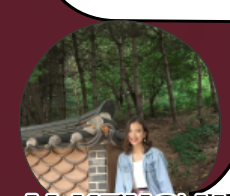
산 부에나벤투라 파멜라

I had a very positive experience with the admission process at Konkuk University. The GKS coordinators in the foreign office were exceptional. They were prompt in answering questions and provided excellent support. I particularly appreciated their outstanding work and want to express my sincere gratitude for their efforts.



쿠아니야마 페리자트

드디어 제가 꿈꾸었던 것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건국대학교에서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게 되어 너무 설레지만 긴장됩니다. 이 소중한 기회를 통해 졸업 후에 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앞으로 2년 동안 많은 친구들과 열심히 문화 체험을 할 뿐만 아니라 공부도 열심히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ALKENOVA GULIM

Hi! My name is Gulim, and I'm the GKS-G 2023 scholar at Konkuk University. Currently, I'm studying Korean at the Konkuk Language Institute to obtain 4급, after that, I can start my Master's Degree. I thought that 4 hours of Korean every day would be challenging, but I'm enjoying every second of it. Our classes are very entertaining, yet extremely helpful. I'm looking forward to getting the highest level possible and making Korean my fourth language.



David

Hi! I am David from Ecuador! I am 22 years and I am Majored in Architecture and English in 2022 ^^ I will do my Master's degree in Architecture too! For the next three years I look forward to create new amazing experiences here in Korea!



BARAK NAAMA MICHAL

안녕하십니까! 저는 태국에서 온 리라다입니다. 건국대학교 정학생으로 입학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갈리모브 오조드마크

저와 같이 2023학년도 2학기 에 건국대학교에 입학한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 여러분들 과거를 담고 미래를 보여주는 대단한 대학들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건국대학교 인생의 주인공은 모두에게나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계획은 '우리'와 관련이 있어야 본인이 인생의 주체로서 살아가면서 본인을 잃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다고 믿든, 할 수 없다고 믿든, 모든 것이 믿는 대로 될 것이다'라는 말듯이 앞으로도 우리 모두 부지런히 목표를 향하여 좋은 결과 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파트리샤 마리샤

안녕하세요 저는 몽골에서 온 노르진수렌 아리운후슬렌 (NORJINSUREN ARIUNKHUSLEN)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초청장학생에 선발되어 건국대학교 언어교육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건국대학교 대학생과 유학생들은 학업 수준도 높고 그들과 문화적 차이 또한 잘 극복할 수 있을지 실은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친구들과 선생님 그리고 새로운 곳에서의 시작이 꼭 낯설지만은 않았습니다. 낯선 만큼 기대감도 크고 설렘이 가득한 시작이었습니다. GKS 준비에 도움을 주신 가족, 선생님, 친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공부를 잘 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으로 정학생으로 선발해 주신 국립국제교육원과 건국대학교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SEEDA REELADA

My name is Naama and I am a new student this semester. I really enjoyed the start. The school is good, the teachers are nice and I feel that Korea is so friendly. Most days I travel around and I see many things inside and outside the university.

건국대학교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 소식지

문화교류프로그램



원하는 색채 체험물을 선택에
재밌었어요다. -파멜라

민화 표현기법 '바림' 채색 체험

가회민화박물관 # 2023. 08. 18(금) # 나무피넬, 부채, 예뻐백 등



심사도 너무 맛있었고
즐거웠습니다! -피아파



2023. 2학기 간담회

2023. 9. 4.(화)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 2023학년도 2학기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처장님께서 방문해 주셔서 환영의 말씀을 해주시며 학생들을 반겨주셨습니다. 담당 선생님과의 인사도 나누고 이번 학기 주요 안내 사항을 전달받으며 새로운 신입 학생들과도 만나게 되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선배 멘토링

2023. 8. 29.(화), 9월 5일(화), 9월 12일(화)



2024학년도 9월에 입학한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 신입생을 대상으로 총 3명의 재학생 선배들과 선배 멘토링을 진행했습니다. 첫 선배 멘토링은 8월 29일 진행되었는데, SID 생성법과 수강신청, 한국어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로 진행되었습니다. 두 번째 멘토링은 9월 5일 진행되어 캠퍼스 투어, 도서관 이용하기, 학생 상담센터 이용하기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되었으며, 마지막 세 번째 멘토링은 자유주제로 건국대 주변 생활, 건국대 기숙사 주변 생활 등 생활에 대한 테마를 잡아 멘토링을 진행하였습니다. 2023학년도 2학기 신입생 여러분들의 건국대학교 입학 축하하며 모두 즐겁고 행복한 건국대학교 생활 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